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0월 6일(금)
--(음력 8월 22일)--
Пятница
6 октября 2023 г.
№ 39 (1205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0월 5일은 국제 교사의 날이다

▲ 황 아나톨리 미하일로비치(한글 이름 황영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3중학교의 생활안전의 기초, 군사훈련 기초, 미술 그리고 교통규칙 과목의 교사이다. 그의 35년의 경력 중 28년은 교사로서의 경력이다. 1981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은 지리학 및 영문학이다.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3중학교에서 2007년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흐초르스크시에서 근무했다고 하였다.

성실한 선생으로서 교육에 대한 공로로 황 교사는 러시아 연방 과학 및 교육부 표창장, 사할린주 교육부 표창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및 시 두마의 표창장을 받았다.

(취재: 이예식 기자)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교육자 여러분!

전문인의 기념일을 맞아 학부모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3년을 '교육자와 멘토르'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교직 사회를 위한 중요성을 지시했습니다.

교육자는 학교 문턱을 갖 넘은 아이들과 만나 처음 글자를 익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졸업시험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매일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교사의 언행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삶의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미래가 형성되고, 사할린 지역과 전 국가의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 지역의 교사들이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주에서 올 교육의 해에 4개의 학교가 개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급되는 현대적인 장비는 더욱더 흥미롭고, 효율적인 학습과정을 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 지역의 교사들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고학년의 학생들은 직업 체험교실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학생들에게서 풍성한 영감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넘쳐났는데, 몇 년 후에는 이들이 교실 칠판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거라 확신합니다.

사할린의 모든 젊은 교사들을 비롯해 은퇴하신 교사분들에게 그 노고와 지혜롭고, 선하고, 영원한 목적을 심어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성공과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교사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사할린의 태평양 의료클러스터 건설에 참여

10월 3일(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학자들이 사할린 지역의 주요 기획 중 하나인 태평양 의료 클러스터 실현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의학부 대표들 간에 합의가 협약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할린의 보건개발을 주제로 한 회의가 주정부 청사에서 진행됐다.

"의료 클러스터의 중심은 내년에 완공될 상담 및 진료 센터의 신축 건물이다. 이곳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최첨단 의료기술과 정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사할린 지역에 치료와 휴양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조성된 요양 및 보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새로운 시설들은 사할린의 다채롭고 풍성한 자연의 모든 것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우리에게서 인재 준비가 남아있다. 우리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의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사할린 의료진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적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발레리 베레고비치는 "인재 준비 문제는 사할린주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의학연구원, 석사, 박사, 고급 자격의 증명서를 지닌 전문의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는 사할린의 의료진을 교육하고, 우리의 의료 전문가를 보낼 계획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 클러스터 건설로 예전에는 국내 대형 과학센터에서만 가능했던 독점적인 의료 방법을 사할린의 의료진들이 도입하게 된다.

클러스터의 의료적 역량에 초점을 맞춘 7층의 건물의 설계는 치료 기능에 있어 환자의 편의와 의료진의 업무 조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향상된 요구 조건을 고려했다.

단신

사할린 주민 80,000명 이상, 독감 예방접종

9월 1일 사할린주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가을이 끝날 무렵까지 지역 인구의 6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 주민 접수는 모든 진료소와 응급센터 및 외래 진료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공공 장소에서는 추가로 이동식 진료소가 마련돼 접종할 수 있다고 주정부가 밝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승리 광장의 이동 진료 차량에는 매일 80명 - 100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동 진료차량은 휴일 없이 운영되어 독감 백신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은 기업이나 근로단체의 신청을 토대로해 실시되며, 백신 성분은 전염균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매해 갱신되고 있다.

백신접종은 주민들이 별도의 예약 없이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급성호흡기감염, 일주일 만에 약 90% 증가

사할린주에서 급성호흡기감염과 독감 증상에 따른 역학 상황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9월 25일부터 10월1일까지 계절성 바이러스 감염 환자 3,771명이 등록됐다고 사할린 지부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지난주 감염률이 그 전주 대비 87.1% 증가한 가운데 아동과 성인들 사이에서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바이러스들 중에는 아데노바이러스, PC바이러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가 있다.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김 제니스 교장선생: "아이들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 편의 예술이고, 한 편의 과학이다."

10월 5일은 러시아에서 국제교사의 날을 크게 기념한다.

그래서 기사 주인공으로 교육자를 찾는 중에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6중학교 김 제니스 윤마노위츠 교장 선생을 만났다.

교장으로서 아직 젊은 나이인 1985년생의 김 제니스는 첫인상부터 진지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아버지는 사할린한인 2세, 어머니는 러시아인으로 제니스 생의 첫 5년은 부랴트 변경 군다 마을에서 보냈다. 제니스의 부모는 울란-우데 산업전문대학에서 학창 시절에 만났다. 결혼 후 젊은 전문가들로서 아이들을 낳아 키울 형편이 어려워져 그 당시 제니스를 양육하는 일은 외갓집의 도움을 받았다. 제니스가 5살이 되자 사할린에 계셨던 친할머니가 가정 사정으로 제니스의 가족을 사할린으로 불렀다. 그래서 13세까지 제니스는 아버지의 고향인 비코브 마을에서 자랐다.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있었으니 사할린한인들의 뿌리와 전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비코브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사할린한인들의 요리를 배웠고 김치, 깍두기 등을 장인 못지 않게 잘 담근다.

제니스가 13살이 되자 가

족은 아니와 구역 트로이츠코에 마을로 이사와 제니스는 이 학교에서 9학년까지 교육을 받고, 9학년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는 자신이 그 당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던 동양 리체이로 전학을 결심했다. 학과목 성적표가 중요했지만 동양 리체이에 들어가려면 따로 시험도 봐야 했다. 이걸 다 통과하고 리체이에서 재미있게 공부했다. 과학, 특히 수학, 물리학, 정보학, 화학 등에 관심이 있어 대륙에 가면 의대에 가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 부탁으로 사할린에 남았다. 어린 여동생을 봐주어 했다고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할린국립대학 물리수학과에 입학했다.

그가 대학에서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는 물리학이었다. 사실 이 학과에서는 주로 수학교사를 양성했지만 제니스는 물리학 교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대학을 졸업하자 대학원(준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사할린국립대에서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사할린국립대 근처에 있는 제16중학교에서도 물리학 교사로도 활약했다. 그의 교사 경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대학원에서 3년 공부한 후 의무적인 군대 복무를 하였다.



군복무를 마치고도 그는 사할린국립대에 돌아와 동대학 물리수학과 학생, 그리고 공과전문학교, 예술전문대학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쳤고, 추가로 제16학교에서도 일했다. 사실 물리학 교사가 사할린에서는 늘 필요로 하는 인재이고 최근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한다.

그는 사할린국립대에서는 인노베이션정책 부서의 과장까지 맡았고, 지도부가 바뀌는 2019년에 스스로 사할린국립대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리고 제16호 학교에 정규직 물리학 및 천문학 교사로 취직했고, 이후 교감직도 맡기 시작했다.

2021년에 제니스 윤마노위츠는 제16호 학교의 교장 선생으로 임명되어 학교에서 아주 바빠졌다.

"교장직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물론 먼저 아내와 상의했지요. 책임도 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했고, 아내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지요. 교장직

을 맡는 거는 우리가 함께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제니스 윤마노위츠가 말하였다.

10월 초에 제니스 윤마노위츠를 만나고자 했을 때 그는 휴가 중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러시아 학교 교장선생들이 방학 때가 아니라 학기가 시작되는 때에 쉬는가?'란 의문을 제기한다. 이유는 새학기의 모든 준비 책임을 교장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수리작업, 교실 준비, 학교 화재안전, 학생 안전, 경비 문제, 스포츠 및 식당 시설, 난방 등등 -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교사 및 학생 총원 문제, 경리적인 문제부터 교육적인 문제까지 그렇다.

김 교장이 운영하는 학교에는 학생 900명이 공부하고 있다. 큰 학교는 아니지만 1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학급이 있다.

"대학생 아니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중 뭐가 더 좋아요?"라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생 같은 경우 이미 미래의 직업을 선택한 젊은이이기 때문에 배우는 과목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기획도 세워볼 수 있고, 다양한 연구도 할 수 있다.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

을 싫어할 수 있고, 공부도 잘 못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나 호기심을 이끄는 실험수업을 하든가, 뭔가 재미있게 이야기 하면 그때 학생들의 감성적인 반응이 너무 좋아요."라고 김 교사가 이야기했다.

그가 학교, 학생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눈에서 빛이 난다.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진다.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해야 한다고 봐요. 그건 저의 절대적인 생각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말을 많이 안 해도 그가 하는 답변에는 깊이가 보인다. 젊은 교장선생과 여러 이야기하면서 그가 교육자로서의 지식, 현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이해,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존경심 등등 많은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다. 알고 보니, 그는 독서를 즐기는 편이다. 좋아하는 서적은 공상과학 소설이다.

교사의 직업에 대해서는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과 누구나 일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편의 예술이고, 한 편의 과학입니다."

제니스 윤마노위츠는 "현대 교사는 생동적이며, 신속하게 응답해야 하고, 끊임

없이 학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는 많은 변화와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했지만 그와 동시에 선생은 아이들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자신을 왜 괴롭혀야 합니까? 그리고 학생을 교육하는 그 결과는 10-15년 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이를 좋은 사람, 좋은 국가의 애국자로, 좋은 시민으로, 좋은 전문가로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것은 두 어린 딸의 아버지로서의 말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은 삶의 반침대이고, 동기 부여가 되는 곳이며, 편안함과 행복이 깃드는 곳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

필자는 김 제니스 자신의 민족 정체성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저는 소련에서 태어났고,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러시아인인데 한국 전통과 풍습을 존경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뿌리와 한민족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민족 정체성이 저에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단순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라고 말하였다.

물리학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선생, 항상 공부를 하며 앞으로 나가는 김 제니스 윤마노위츠를 응원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전국 걷기의 날'을 맞아 대회에 사할린 주민 600여 명 참가

10월 1일(일) 사할린주에서 '전 러시아 걷기의 날'을 기념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통계학' 기획의 <스포츠 - 생활의 표준>이란 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매년 체육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할린주는 이런 대규모 체육행사를 7회차 개최하고 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2015년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전통적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그 동안 걷기 행사의 장소는 여러 번 바뀌어왔는데 올해는 완전 새로운 코스가 선정되었다. 주민들에게 엘란카 생태 오솔길을 따라 걷는 5km 이상의 코스가 주어졌다. 출발지는 고리키 거리와 불니츠나야 거리 교차로이고, 종착지는 돌리나 투리스트오브(여행객의 계곡)까지였다.

날씨 여건이 안 좋은 상태이긴 했어도 전국 걷기의 날에 총 600명 이상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참가하여 어린 아이에서부터 고령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 코스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종착지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기념 동전과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와 함께 따뜻한 차와 도너츠, 포토존과 다양한 놀이 행사, 록 그룹의 공연이 사할린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Более 600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ходьбы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ходьбы отпраздн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 октября. Ежегодная физкультурная

акция проходит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реализуем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масштабному спортивному событию в седьмой раз,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тавшее уже традиционным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2015 года. За все время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а неоднократно менялось. В этом году вновь был выбран абсолютно новый маршрут. Островитяне ожидали более 5 км трассы по экологической тропе Еланька. Старт был дан на перекрестке улиц Горького и Больничной, финиш ждал в Долине туристов.

Несмотря на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ходьбы собрал более 600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еодолеть маршрут вышли островитяне всех возрастов — от дтсадовцев до сахалинцев серебряного возраста.

На финише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вручили жетоны и дипломы. Также сахалинцев ожидали горячие чай с пирожками, фотозона, различны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и выступление рок-группы.

사할린에서 가장 운 좋은 참치잡이 낚시인 발표

9월 30일(토) 사할린 참치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네벨스크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사할린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낚시인들이 선정됐다.

참치잡이 경연 주최 측은 경쟁자들이 잡은 참치 1kg당 1점을 주어 잡은 참치의 총중량을 평가하고, 최고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을 위해 후원자가 제공하는 상금과 증서를 준비했다.

참치잡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금상과 은상의 어획량 차이는 5kg에 불과했다.

경쟁에서 총 55.63kg의 참치를 잡은 '사할린의 참치 사냥꾼'팀이 동상인 3위를 차지해 주 후원자인 '위드니크'컴퍼니로부터 상금 3만 루블리와 20만루블리 상당의 증서를 받았다.

2위는 총 74.85kg의 참치를 잡은 '위드니크 메리 피쉬 (merry fish)'팀이 차지해 상금 6만 루블리와 30만 루블리 상당의 증서를 받았고, 1위는 총 79.70kg의 참치를 잡은 '와실리'팀이 차지해 상금 10만 루블리와 50만 루블리 상당의 증서를 받았다.

또한 주최 측은 경연프로그램 외에 오락 프로그램과 참치회 및 참치 분리하기, 참치회 시식에 따른 체험교실 등 각종 행사들을 준비했고, 어린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동화 속 주인공 공들을 초대하며, 놀이와 그림 그리기 행사 구역도 마련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назвали самых удачливых охотников на тунцов

Самых удачливых рыбаков определ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нца.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и 30 сентября в Невельске.

Уловы организаторы оценивали по общему весу тунца — за каждый килограмм рыбы конкурсанту присваивают один балл. Для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и сертификаты от спонсора. Борьба рыбаков была столь напряженной, что разница в весе улова у золотых и серебряных призеров составила всего пять килограммов.

Так, бронзовым призеро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ие охотники на тунца». Они получили 30 тысяч рублей и сертификат от главного спонсора — компании «Водник» — на 200 тысяч рублей. Вес улова составил 55 килограммов 630 граммов.

(8면에 계속)

한인동포 소식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미니 바자회와 노인정 모임 개최

지난달 30일 (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건물 마당에서 미니 바자회와 노인정 어르신들의 야외 모임이 있었다.

여름방학 이후 가을에 처음 만난 어르신들은 이날 시한인회의 여성분들이 정성껏 차린 맛있는 밥상을 받고, 다양한 주제로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웠다. 때마침 이 모임은 추석을 맞아 진행하여 더욱 마음이 들떴다. 림종환 회장은 이날 2024년까지의 노인정 모임 날짜도 발표했다. 10월에는 7일, 21일, 11월에는 4일과 18일, 12월에는 2일과 17일 1세 어르신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의 모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시한인회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날 미니 바자회에서는 호박, 오이 등을 비롯한 채소, 잼, 과자, 떡, 절인 오이 등을 판매했다.

모임 주최자 및 참석자들 모두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추석 명절> 강좌



지난 9월 29일(금) 사할린 문화센터에서 추석 명절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사할린 주민 100여 명이 참석을 신청하여 사할린 국립대학의 한국어 교사와 한인문화센터,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주 한인청년회 대표들의 지도 아래 한국의 추석 명절을 기념하여 한인 문화센터에서 공개 강연이 열렸다. 이 행사는 주최 측의 노력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석하여 한국의 민족문화 부문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로 대학 및 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은 한국 명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고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추석은 1년 중에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뜨는 음력 8월 15일이다. 대한민국 최대 축제의 날로서 올해는 9월 29일이 바로 추석이었다. 주최 측은 추석날에 맞춰 특별한 문화 강좌를 개최했으며, 이 강좌는 사할린 대학의 언론, 역사 및 동양학 대학의 임 엘비라 아나톨리에브나 학장의 연설로 시작되었고, 추석 명절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 그리고 전통 및 유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추석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전통놀이 또한 상세하게 소개했다.

엘비라 교수의 연설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센터의 김미경 한국어 강사가 한국어로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소개했다. 그리고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김미경 강사의 강의 자료는 러시아어 출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강의를 청취하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의미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행사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추석 명절에는 농번기 수확 축제와 함께 조상들에게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들여 만든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동안 참석자들은 추석이 왜 특별한 휴일인지, 그리고 추석에 치뤄지는 의식과 그 의미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김 강사의 강의를 끝나고 사할린주 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씨름의 기원과 의미, 대회 규칙 및 씨름의 전통적인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씨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씨름'에 대한 만화영화가 짧게 상영되었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아주 재미있게 관람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후, 사할린 국립대 외국어 및 국어과 과장 인나 코르네예바 교수가 이 행사에 참석한 손님들을 위해 강의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퀴즈를 만들어 답을 맞춘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선물을 증정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경청하고, 기억하면서 퀴즈를 풀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뽐냈다. 퀴즈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추석은 한국 민족의 가장 중요한 휴일 중 하나이고, 민족 대이동과 함께 가족을 만나며, 조상들께 감사를 전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성도 알게 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행사였고 그동안 몰랐던 한국 추석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강연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2세 문제 계속 추진

지난 1일(일)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천영곤)가 지난 8월에 방한한 사할린 한인대표단의 보고, 사할린한인 2세 조사 문제 등으로 회의를 열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6월 초에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방안' 콘퍼런스가 샤프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가운데 콘퍼런스에서 사할린 한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공동 청원서를 채택하여 한국의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재외동포청 등에 보냈다. 콘퍼런스의 결과물에 적시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의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 6명이 지난 8월에 한국을 방문(현지 2023.08.25호 게재)했다. 이에 이채인 동포 2세와 김흥지 전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이 사할린주를 대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자세히 한국 방문의 동기를 보고했다.

대표단은 우선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단체 권경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만나 2세 문제 해결에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대표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제안을

한 이명수 국회의원과 만나 사할린한인들의 요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영주귀국 대상에 이미 사망한 1세의 사할린 동포 자녀 2세를 포함해 달라는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또한 대표단은 재외동포청을 찾아 최영한 차장과 효과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이채인 활동가가 강조했다. 그외 대표단은 한국 적십자사와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할린한인 사업 관계자와 만나 현 사할린한인단체 상황 등에 대해 전했다.

한국 측에서 부모가 사망한 2세 자녀들의 영주귀국 허용 문제를 제기하려면 영주귀국 희망자 수치를 대충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추진 중이고 사할린 같은 경우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가 법적인 승인을 얻어 지난 5월에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사할린한인>회 측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사망한 1세 부모의 사할린동포 자녀 2세들의 문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순신 기자)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고려인 주제로 행사 개최

지난 4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가 가진 호텔 콘퍼런스실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 기념)을 맞아 러시아 동포들을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



우선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이 참석자들을 따듯이 환영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소속 합창단(지도 강팔용)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날 주요 강사로 나선 진 율리아 역사학 박사는 러시아로 한인들의 이주 역사, '고려사람'의 자체 민족명에 대한 뿌리, 그리고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고려인의 강제이주 역사를 전했다. 특히 이 강제이주가 고려인들을 더 단결시키고, 더 부지런하고, 더 강하게 움직이게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할린한인과 고려인의 차이, 고려인들의 정체성 문제도 언급했다. 진 박사는 재미있는 일화도 얘기하여 관객들은 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고려인들 중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와 레닌 훈장을 받은 농업 종사자가 꽤 많았다. 신 드미트리가 쓴 동명의 책에는 사회주의 노동영웅 206명이 기록되었는데 주로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농업 종사자였다. 러시아에는 유일한 고려인 사회주의 노동영웅은 사할린의 유명 어민 한 알렉산드라다. 한 알렉산드라의 조카 손녀인 엘레나 레위나(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 성은 남편성을 따름)는 고모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사할린동포, 조선 파견노동자 출신 중에는 1950-1970년대 흠스크에서 거주하며 활약하셨던

한 알렉산드라를 추억하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녀의 작업반이 조업한 어획량은 항상 기록적이었고, 주변의 고위직의 사람들도 자그마한 키에 저력이 대단한 고려인 여성을 많이 존경했었다.

벼농사로 유명한 고려인 김만삼에 대해서는 그의 손자 김 라디온이 이야기했다. 김만삼은 특히 벼의 재배 방법을 개선하여 기록적인 수확량은 늘리는 것으로 스탈린상과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비롯해 많은 국가 훈장을 받은 고려인이다.

이렇게 사할린한인들은 이웃 고려인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Корейская каллиграфия (3)

Для мастера Ким Ен Сам традиция изображения «благородных цветов» – воплощение единства этико-эстетических принципов каллиграфии и живописи. Развернутые надписи-темы скорописного письма,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изображение на работах, иногда занимают значительное место в пространстве свитка, их расположение тонко сбалансировано с живописной частью произведения. Специфическая архитектура свитков рассчитана на созерцательное начало, поэтому в композиции большая роль отведена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й среде, как носителю идеи духовности. Оба элемента, изображение и слово, слитые воедино в пространстве свитка, представляют особую, с соблюдением классических норм,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структуру и завершенность.



Ким Ен Сам (1957 г.р.).
Провинция Кенги-до, г. Сеул
Цветы сливы мэхва.
2016 г.
Бумага, тушь. 135x68;
155x78
Поступление: дар автора, 2016 г.
КП-10241 Ж/в-1445

В классическ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ивописи красоту цветущей дикой сливы мэйхуа воспевали и запечатлевали поэты и художники. Этот особый вид живописи культивировался и в среде художников мунинхва. Её популярность связана с философс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и символикой: дуалистическое начало инь-янь, чистота и стойкость, счастье и возрождение природы. Автор сохраняет классические каноны изображения мэхва: две крупные разделенные ветки, диагонально заполняющие белый фон бумаги, расположение тонких ответвлений с цветками сливы даны в четыр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абота выполнена в живописной манер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ветлых тонов туши, сочетанием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их линий и широким мазком. По левому краю внизу вертикальная надпись и 2 печати. Обрамление темно-зеленого цвета с красной окантовкой по вертикальным краям.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В РК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дронов

С 6 по 9 ок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ави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ведут в городе Намвоне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Международную выставку-конференцию дронов.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70 профильных компа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выставочной площадке организованы три специальных зала, посвященных применению дронов в сферах логистик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спорта. 37 мировых экспертов представят своё видение применения дронов в «умном»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обороне.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ки пройдет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дрон-рейсингу под эгид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виационной федерации.

KBS World

Цена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превысила 1.700 вон за литр

Впервые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цена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превысила в РК 1.700 вон за литр.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фтяной корпора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8 часов утра 5 октября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на 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я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оставила 17.003 воны (1,25 доллара) за литр.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бензина впервые с ию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плотную приблизилась к отметке 1.800 вон за литр, составляя на 8 часов утра 5 октября 1.796 вон (1,32 доллара) за литр. На фоне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роста мировых цен на нефть цены на бензин и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в РК растут 12-ю неделю подряд.

KBS World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ссказали об истории коре сарам

4 октября в ГК «Гагари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корейцев. Этот день празднуется 5 октября, посвящен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живущим по всему миру. Темой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а жизнь, культура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ая адаптац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и странах СНГ.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и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В качестве приглашенного лектора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рассказала об истории 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происхождении этнонима «корё сарам» и трагической страницы их истории – депортации 1937 г.

Известны имена более 200 Герое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живших и трудившихс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В основном это были работник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з республики Средней Азии. И лишь одна россиянка, знаменитая сахалинская рыбака Александра Хан, удостоена звания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О ее жизни и достижениях



рассказала внучатая племянница Елена Ревина. Бригад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лександры Хан добывала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ыбы, постоянно перевыполняя планы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О своем деде Ким Ман Саме и его трудовых достижениях в выращивании риса поведал его внук Радон Ким. Ким Ман Сам знаменит внедрением передовых приёмов агротехники, обеспечивших получение на значительных площадях рекордных урожаев риса — свыше 150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Именно за это он награжден Сталинской премией третьей степени. В семье Кима говорят, что не знают о корейцах, которые бы получили такую же премию. Ким Ман Сам является Герое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Ленина и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В этот день гостей также приветствовал с музыкальными номерами хор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Мугунхва».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здравили с Чхусок

Активисты ЮСМООК поздравили наших подопечных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корейским праздником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추석).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30 сент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коло здания ЮСМООК была устроена небольшая ярмарка – выставка урожая со своих огородов и дач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накрыли стол, угостили праздничным обедом.

Для коллектива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с проведения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после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начинается работа Клуб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На празднике были объявлены даты его работы до конца года – 7 и 21 октября, 4 и 18 ноября, 2 и 17 декабря.

В дни его работы ждём у нас не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о и тех, кому исполнилось 75 л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Фото Ли Е Сик



Отчет об итогах встреч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с 21 по 24 августа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главе с общественным деятелем И Че Ын побывал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 целью продвижения инициативы по изменению законов Коре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пра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Делегаты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и СНГ ставили целью донести д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ш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1 октября в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состоялось собрание,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заслушаны отчеты по поездке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 Че Ына и Ким Хон Ди. Они рассказали о состоявшихся встречах в Агентстве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е, где ставили вопрос о внесении поправок и изменений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нкретно, ставили вопрос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езда на ПМЖ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уже умерли. Сейчас в регионах идет работа по сбору данных о количестве желающих выехать на ПМЖ в Коре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та работ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 рамках правового поля в мае месяце. Делегаты также встречались с работникам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где беседовали о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в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е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взаимопомощи 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с Все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частники собран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ать дальнейшие шаги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поправок к Спец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 решению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опрос о 2-ом поколении.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И Че Ын и Ким Хон Д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хеньян: Термин «постоянная угроза» более характерен для США

В недавно обновлённой версии Стратеги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оружию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CWMD)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США описало Китай как «растущую угрозу», Россию как «острую угрозу», 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Иран как «постоянные угрозы». В Пхеньяне высказались решительно против принятого документа. «Термин «постоянная угроза»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для США, крупнейшего в мире государства, обладающего оружием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и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реступ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овало атомные бомбы, клеймит КНДР как «врага» и усиливает беспрецедентную ядерную эскалацию»,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4 октябр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США не только угрожают КНДР, но и раскрывают свои «опасные агрессивные намерения», пытаясь захватить «глобальную военную гегемонию». Такие угрозы вынуждают Пхеньян «решительн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овать всё более безрассудной угрозе, исходящей от США»,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КНДР закрепило в конституции страны политику укрепления ядерных си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евере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 позволяющий превентивное примене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21 китаец задержан за незаконное проникнов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К

Морская полиция города Порёна провинции Чхунхон-Намдо задержала 21 гражданина Китая при попытке незаконно проникнуть на территорию страны. Задержанные 3 октября примерно в 2 часа ночи приплыли на лодке к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берегу близ порта Тэчхон. Один человек сошёл с лодки и скрылся в неизвес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о полиция задержала его в 8:47 утра. Морская полиция начала операцию по задержанию нарушителей границы после сообщения военных о приближении неопознанной лодки к западному побережью близ Порёна. Известно, что лодка после выгрузки нарушителей направилась в сторону границы с Китаем. Принимаются меры по её перехвату. В отношении задержанных проводятся след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Пусане откры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ечером 4 октября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XXVIII Пус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BIFF),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дней. Фестиваль открывает новая рабо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Чан Гон Чжэ «Потому что я ненавижу Корею» (Because I Hate Korea).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209 фильмов из 69 стран мира. Показы пройдут в четырёх крупнейших кинотеатрах города.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будет показан фильм «Император кино» (The Movie Emperor) кита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Нин Хао.

У РК первое золото по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в Ханчжоу

4 окт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евали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в Ханчжоу первую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Её обладателями стали Им Си Хён и Ли У Сок, одержавшие победу над японски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Сацуки Ноду и Такахару Фурукава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стрельбе из олимпийского лука среди смешанных команд.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серебряной медали в стрельбе из блочного лука среди смешанных команд. Со Чхэ Вон и Чу Чжэ Хун уступили спортсменам из Индии Джьоти Сурекхе Веннаму и Оджасу Правину Деотале. У Сан Хёк завоевал серебряную медаль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прыжкам в высоту с результатом 2,33 метра. В полуфинальном матче по футболу среди мужчин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над командой Узбекистана со счётом 2:1 и вышли в финал. 7 октября они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с командой Япон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дня 4 октября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33 золотые, 45 серебряных и 70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Они занимают третье место в общем зачёте после Китая и Япони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 восьмом месте. У её спортсменов 9 золотых, 11 серебряных и 8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Кимхэ – город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Город Кимхэ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выбранный городом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 2024, проведёт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культурному обмену между РК, Китаем и Японией. По одному городу или региону от каждой страны ежегодно получают статус города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чиная с 2014 года. Такие города в течение года проводят акции и мероприятия, наце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Церемония присуждения данного статуса состоялась 8 сентября в городе Чонджу в ходе встречи министров культуры РК, Китая и Японии. Городам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 2024 год ст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имхэ, китайские города Вэйфан и Далянь, а также японская префектура Исикава. (RKI)

Лекция о Чхусок состоя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29 сен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шла открытая лекция, посвящённая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азднику урожая Чхусок. Любому желающему мог посетить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и повыс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в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благодаря старания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Большое число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на лекции, говорит о высокой популярности и значим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сред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Лекция началась с выступления директор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ы Анатольевны Лим,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освещались историче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значение, традиции и правила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Рассказ о праздник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одолжил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Ким Ми Гён.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значимая часть лекцио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Ким Ми Гён недоступна в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сточниках. Поэтому, благодаря выступлению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узнали о корейском празднике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много нового. Чхусок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праздником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много символического смысла. И в ходе лекции каждый получил для себя новые знания о ритуалах праздника и их значении. Кроме того, лекторы рассказали о том, ка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украшают столы «чхаресан» во время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раскрыв символ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каждого продукта.



С не менее интересным рассказом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Чун Алекс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раскрывший для слушателей истоки корейского единоборства, его философию, правила проведения состязаний и их традиционное значение в празднике Чхусок, подытожив с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показом мультфильма о «Ссирым».

По окончании лекции заведующей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СахГУ Корнеевой Инной Владимировной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икторина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авильно ответившие на вопросы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небольшие сувениры. А затем всех гостей пригласили за сладкий стол, чтобы попробов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для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блюда.

Как г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я хочу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лекции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о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ультуре и традициях, а также за теплый прием и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которая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в стенах аудитории.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На лекцию о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приглашают сахалинцев

В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9 октябр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РЭМ «Сахалинский ЭтноЛекторий»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проведет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лекцию.

Лекция «Корейск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на Сахалине»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одному из интересных аспекто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с акцентом ее развития и появл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в сред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древний язык алта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на становление которого оказала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китайская иероглиф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Но с изобретением в XIV в. собственной звуковой азбуки – хангыль –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начинается новый этап, когда все сло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письменн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пользовались хангылем в специф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совет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акопив интересный опыт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Юлия Дин –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историк и этнограф, изучающий жизнь и быт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й ЭтноЛекторий» проводится Российским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м музеем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Это публичная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площадка, где в течение года учёные Сахалина 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з Российск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музея прочитают лекции по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истории и фольклористике для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Вход на лекции свободный.

Контакты: ethnomuseum.sakh@yandex.ru
https://t.me/ethnomuseum_sakh
8(4242) 43-65-83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문예콩쿠르 공모

2023년 12월 10일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를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주민 및 러시아 국민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한국어, 러시아어)
- 공모주제: 한민족의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주제는 '한국교육원이 내 삶에 준 변화', '내 삶에 한국어(한민족문화)어가 심어준 변화', '한국 문화의 매력'

- 공모기간: 2023년 11월 중순까지.
- 발표 및 시상식: 2023년 12월 8일(금)
- 시상: 상장과 상품
- 주최: 새고려신문사,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국어 교사협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또는 vika131065@gmail.com 로 보내주시거나 신문사 사무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콩쿠르조직위원회

Конкурс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и в честь 30-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Работы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Автор должен рассказать читателям о том, как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менило его жизнь и характер; какую роль в жизни автора сыграл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влекают и раскрывают загадку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ноября 2023 г.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тему эссе,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учащимся),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участник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 адресу: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по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Почти полторы тысячи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первому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му фестивалю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профессий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К нем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ученики 6-11 классов.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развернули более 20 презентационных площадок, на которых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пробуют себя в различных профессиях, участвуют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и деловых играх. С ребятами занимаются эксперты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Дорогие ребята, мы очень хотим, чтобы вы нашли свое призвание. Это сложная, но интересная задача. Уверена, вы с ней справитесь. А фестиваль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вам в этом поможет.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ши лучшие работодатели, актуальные компетенции и профессии будущего. Не стесняйтесь задавать вопросы экспертам, будьте открыты для новых знаний и у вас обязательно все получится. Удачи, – обратилась к участникам фестиваля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На фестивале учащиеся знакомятся с профессиями из сферы IT,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К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энергетики. Кроме того, со школьниками общ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ЧС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К примеру, ребята посети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нейросетей, узнали о тонкостях ювелирного дела.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провела игру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дставила профессию «Бортпроводник». С помощью VR-очков парни и девушки погрузились в историю 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ави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бера Сергей Манакин рассказал юным островитянам о влиян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а профессии будущего.

–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уже сейчас активно внедряется в различные области, и его влияние на профессии будет только увеличиваться. Некотор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могут полностью исчезнуть, в то время как другие будут тран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или появятся новые. Например, будет больше различных профессий, связанных с созданием,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ем и обслуживанием роботов и сист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стати, все, что я сейчас вам сказал, написала нейросеть. Я просто выучил это и озвучил. Во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могает замен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лекторов, – пошутил Сергей Манакин.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энерго» познакомили ребят с профессией электромонтера по ремонту и обслуживанию электро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школьники зачистили провода и сняли изоляцию.

– Сегодня я узнал много нового о работе полицейских. Нам рассказали про службу эксперта-криминалиста, огневую подготовку. У кинологов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е задачи – они с помощью собак ищут различные предметы и вещества. А еще нас научили снимать отпечатки пальцев. Мне нравится сегодняш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Могу попробовать то, что мне интересно, пообщаться с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 рассказал ученик восьмого класса Даниил Воробьев.

С помощью персональной профдиагностики школьник может определить близкую для себя сферу и больше узнать об интересной для него профессии.

Отметим, проект по ранн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учеников 6–11 классов «Билет в будущее»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Успех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К созданию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ластер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исоединится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3 октября академики РАН подтвердили свое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одного из главных проект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ластер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между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едиц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Встреча, посвященная развитию остров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стенах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Сердцем медицинского кластера станет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 новый корпус,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го заверша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Там планируется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технологии и решения для лечения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пациентов.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а будут доступны санато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услуги – в регионе откроют новые учреждения для лечения и отдых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благо людей всё многообразие природных богатств Сахалина. Принципиальным для нас остается вопрос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Необходимо не только привлека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но и повыша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островных врач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читаем, что вопрос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с те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которые уже имеют диплом – это ординатура, аспирантура, докторантура,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Согласно нашей новой программе, мы будем обучать ваших врачей у нас, а также отправлять к вам наш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обмен знаниями и опытом, – подчеркнул академик РАН Валерий Береговых.

Запуск кластера позволит островным врачам внедрять эксклюзив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методы, ранее возможные только в крупных научных центрах страны.

Проект семиэтажного корпуса, в котором будут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медицинские мощности кластера, создавался с учетом повыше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 лечебный функционал должен сочетаться с комфортом пациентов и условиями рабо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Так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работает ПЭТ/КТ – позитронно-эмиссионная томография – один из самых информативных методов в ранней диагностике серьез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кардиологических, неврологических,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А островитянам станут доступны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виды диагностики – расширение функционала онк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ы является еще одн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кластера.

РАН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привлечением эксперт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учреждений для участия в создании и работе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ластера.

Действующий договор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медицин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был подписан в 2019 год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н будет дополнен с учетом новых задач. Документ откроет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озвучали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 странами СНГ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ую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биоэтике, доказательной медицине при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й ассамблее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Кроме того,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создать на Сахалине фили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одного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едвуз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запустят в 2024 году

Нефтегазовый парк объединит десятки производств, которые займутся обслуживани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стровных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сопутствующим сервисом и научными изысканиями. Для этого на площадке откроют офисы, лаборатор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базы и склады, обеспеченные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мплекса сдаду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а полностью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завершат в 2026 году.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 Парк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очередей. Первую реализует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Это тр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лабораторных комплекса.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заниматьс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м объектов, лабораторны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и так далее. Остальные две очереди строит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помещения свободной планировк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как офисы, обучающие или лабораторные помещения. Их строят в том числе сами резиденты, разрешение на такие работы получили уже 7 компани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бщая заполняемость парка по второй очереди – почти 90 процентов. Осталось буквально 3 свободных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а, – рассказал Дмитрий Вдовин,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построено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Полностью эти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12 компаний.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м работам. Для всех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хотят стать резидентам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Кроме того, компании получают пакет преференций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В част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освобождаются на 5 лет от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и имущество, на 3 года от земельного налога, платят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по сниженной в 4 раза ставке.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й, стоявших у истоков создания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В их числе – «Интра-Сахалин», котора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полный комплекс сервисных и ремонтных услуг в области безостановочного ремонта трубопроводов.

– На площадке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мы планируем постро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комплекс. В этом году войдем в нулевой цикл. Планируем потратить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оснащение около 3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для нас важно формировать кадровый ресурс на месте, чтобы у нас работали именн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этого мы набираем и обучаем людей, трудоустроили почти 60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компании Александр Шилов.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а также другие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откроют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едла-

гае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ч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кампус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снащение вуза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зволит готовить боле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 актуальные задач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Этому такж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глашение с МГТУ имени Баумана, совместно с которым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вать лаборатории и научные центры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для региона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500 школьников»

Старт совместному проекту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500 школьников», организованном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 октября. В ТДЦ «Столица» собрались 660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углубленно изучать математику, физику, химию, биологию и информатику перед поступлением в вузы.

–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к нашему проекту «500 школьников» такой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Мы не ограничиваем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несмотря на его название. Убежден, что сидящие сегодня в этом зале ребята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е, желающие добиться боль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и готовые всерьез идти к своей цели люди. Мы поможем вам получ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знания 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поступлению в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Потому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чень перспективный и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регион. И мы хотим, чтоб вакансии в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ферах и направлениях занимали именн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се вы. Занятия с лучши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вуза помогут вам раскры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 обратился к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роект «500 школьников» уже вошли 22 школ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659 учащихся 10 и 11 классов будут углубленно обучаться по таким дисциплинам, как «Математика» и «Физика», «Химия», «Биология» и «Информатика». Лекци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аудиториях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Мы усиленно готовились к проекту, приобрели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идумывали как сдела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удобным для вас. Мы рады, что вы будете у нас обучаться, участвовать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ах, работать в лабораториях и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работы оказались значимы и для вас, и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 вам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лучш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задача которых не просто дать вам знания, но и показать, ка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открывает наука. Вас ждет интересный насыщенный учебный год, – отметил и.о.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 Я думаю этот день останется яркой страницей в вашей судьбе. В области и городе много внимания уделяется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безусловно, важнейший этап. Уверен, что многие из вас захотят там учиться. Я точно знаю, что там вы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ите знания, но и приобретете новые смыслы, станете высококласс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 своей сфере и придете работать на наш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 выступил с напутствием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Метод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для занятий с ребятами разработ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грамма составлена с учетом заданий ЕГЭ прошлых лет и вступительных экзаменов в вузах.

– Для меня ключевым при решени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было то, что такое углубленное обучение поможет мне успешно сдать ЕГЭ. Я выбрал для себя физику, с профессией еще точно не определился, но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она была связана с этим предметом, – рассказал учащийся школы № 6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Власов.

– Я выбрал математику и информатику. И уже точно знаю, что поступать буду в СахГУ. Хочу работать в IT-сфере, заниматься разработкой продуктов или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ью, – поделился учащийся школы № 26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икита Шубаро.

В конце учебного года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сдадут мини-экзамен, а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едут анализ их персона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 ЕГЭ.

Отметим, проект «500 школьников»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большой работы по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системы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делать островной вуз и его студентов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и 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кардинально пересмотреть подход к организации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СахГУ. Одновременно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СН, в котор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ереедет в будущем. Его фундамент залож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2025 году, 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 в 2026 году.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торый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에 <500명의 학생들> 기획 전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조직된 <500명의 학생들> 기획을 사할린 국립대와 주 교육부가 공동으로 기획해 10월 3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됐다. '스틀리차' 비즈니스 센터에는 대학 입학 전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통신을 심도 있게 연구할 고학년생 660명이 모였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500명의 학생〉이란 우리의 기획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어서 무척 기쁘다. 기획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이 기획에 참가자들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늘이 흠에 앉은 학생들은 목적 지향적이며, 큰 성과를 이루길 갈망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진지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준비하도록 도울 것이

다. 왜냐하면 사할린주는 아주 전망이 높으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망적인 분야나 방면의 빈자리들을 사할린주의 주민들인 여러분 모두가 차지하길 바란다. 러시아의 우수한 대학의 교수들과 함께하는 수업들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고등학생들에게 말했다. 〈500명의 학생들〉 기획에 사할린주 중심의 22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10학년과 11학년의 학생 659명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통신 과목에서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강의는 사할린 국립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기 위한 방법론적 학습자료는 사할린주 교육개발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개발했다. 교과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간 국가 학생수능과 대학 입

학시험의 문제들을 고려해 작성됐다. 학기 말에 기획 참가자들은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교육부의 전문가들이 국가 수능시험의 결과들로 개별적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500명의 학생들〉 기획은 사할린의 고등교육의 혁신체계에 따른 대규모 활동의 한 부분이다.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할린 대학과 대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할린 국립대 교육과정 체계의 연구법을 본질적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했다. 이와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사할린 테크(TECH) 캠퍼스 건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적 수준을 향해 대학은 미래로 나아가갈 것이다. 8월 초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그 기초가 다져졌고, '대학생의 도시' 건설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교육 단지는 2026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모스크바서 러시아 최초 김치 전문서적 '김치' 발간

안드레이 나움치크 씨가 펴내, 9월 29일 발간 기념행사 개최
남북한 김치의 차이와 60여 김치 조리법 등 실려

러시아 최초로 우리 전통 음식 김치를 다룬 전문서적이 발간됐다. 지난 9월 29일 러시아 수도 중심가 소재 식당 '에브라시아'에서 러시아 최초 김치 전문서적 '김치' 발간행사가 열렸다. 추석 맞이 파티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의 개최 장소 '에브라시아'(유라시아)는 한국 음식을 주로 내놓는 동양 음식 전문 식당으로 지난 8월 문을 열었다. '김치'를 집필한 안드레이 나움치크 씨가 요리장을 맡고 있다. 올해 환갑을 맞은 나움치크 씨는 모스크바대 한국어과 출신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을 넘나들며 생활해 많은 경험을 한 인물로 이날 행사도 직접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나탈리아 모스크바 국립대 한국학센터 소장, 마사 사도토타 러시아 국립인문대학교 한국학과장, 김원일 러시아민족우호대



러시아 최초로 우리 전통 음식 김치를 다룬 전문서적 '김치'를 펴낸 안드레이 나움치크 씨 (사진 모스크바프레스)

교수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학생 등 여러 손님이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를 찾은 이틀만 수백 명에 달했다. 나움치크 요리장은 이들을 위해 무김치, 배추김치, 백김치, 양배추김치, 호박김치 등 각종 김치류와 함께 만두,

닭도리탕, 수육, 잡채, 두부김치, 비빔국수, 김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내놓았다. 특히 나움치크 씨가 직접 주조한 수제막걸리는 독특한 맛과 향으로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는 모스크바대 한국어과 학생들의 케이팝 경연대회도 펼쳐졌다. 이번에 발간된 '김치'에는 남북한 김치의 차이점과 대표적인 김치 60가지에 대한 소개와 이를 만드는 방법 등이 실렸다. 나움치크 씨는 김일성 대학교에서 유학생생활 했으며 옛 소비에트연방 시절 전(全)러시아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서 북한노동조합과 관련한 업무도 맡았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에서는 소련 선수단 통역 요원으로 선발돼 한국을 처음 찾았으며, 모스크바에서 한국 식당을 경영하기도 했다. 한국

아동복 체인점 운영도 했다고 나움치크 씨는 설명한다. 이후 한국요리에 관심과 열정이 생겨 본격적으로 한국 요리를 공부한 그는 2019년부터 모스크바 소재 동양 요리 전문 식당에서 한국요리 담당 요리장으로 근무했다. '김치'를 펴낸 이유에 대해 나움치크 씨는 "그동안 김치 조리법을 정확히 담아낸 러시아어로 된 책이 없어 김치에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와 오해가 많이 퍼져있는 점이 안타까웠다. 또 러시아에서 한국 음식과 요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김치가 단순히 배추로 만든 음식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 매우 다양한 재료로 양념을 이용해 만드는 건강 음식으로서의 김치를 알리고 싶었다는 점도 책을 쓰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연해주 고려인 문화의 날' 행사, 17년 만에 다시 열려

9월 29~30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위치한 고려인 이주 140주년기념관에서 개최고려인 동포들의 고단한 이주와 재이주, 그리고 정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 '연해주 고려인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9월 29~30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위치한 고려인 이주 14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연해주 고려인 동포들의 100여년간의 고단한 이주와 재이주, 그리고 정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북아 동포들의 잔치다.연해주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고려인통일연합회,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 등 3개 단체가 중심이 돼 2001년부터 매년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아르쭘, 나호드카 등 고려인 동포 집거지를 순회하며 개최해오다 2006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고, 올해 17년 만에 재개됐다. 올해 축제는 연해주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회장 김 니콜라이 삐뜨로비치), 고

려인통일연합회(회장 박 발렌친 삐뜨로비치),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이사장 주인영)이 주최하고 연해주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가 주관했다.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김현동)가 후원하고 부산 YMCA 소속 대학생 20여 명이 공공외교단으로 참여하며, 중국과 한국에서 대표단 2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연해주 고려인 문화의 날' 행사는 2024년 개최할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의미도 가졌다. 동북아평화연대와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은 행사 첫날인 9월 29일 고려인문화센터 한글학교에서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연해주에서의 코리안 농업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발렌친 삐뜨로비치 고려인통일연합회장이 기초 발제를 하고, 이어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이 2024년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를 세계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 차원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윤미향 동북아평화연대 이사는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의 주제와 내용을 발표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현동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이 지난 20년간 연해주에서의 한인들이 진행해 온 농업을 개괄하고 이후 농업 방향을 제안한다. 부산 YMCA와 함께 방문하는 박형채 소백산영농조합 이사장, 엄병헌 강릉 키스트 전문위원, 배동걸 동북아평화연대 중국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는 9월 30일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앞마당에서 축제를 열고, 동북아평화연대와 민족문화자치회는 이날 저녁 기념관 대강당에서 동북아 동포 200여 명을 위한 저녁 만찬을 제공했다. (재외동포신문)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4층 강당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도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4층 강당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적과 거주지의 불일치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정책고객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겪은 어려움을 밝히고 관계부처들이 개선 계획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며 겪은 불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외국국적동포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성명이 로마자로 기재돼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뉘셈 기호(-)가 들어가져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까지 포함돼 본인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영주증과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성명이 로마자로 적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성명이 한글로 적혀 같이 사용할 때는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공유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에 '국가신분증 운영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고, 앞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의 외국인 성명 관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표준 인적 정보를 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반영되면 바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정 씨는 휴대전화에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며,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공공표지판의 표현이 어렵고 번역이 잘 안돼 곤란했던 경험,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데 여러 달이 걸려서 자녀의 입학이 늦어졌던 경험 등도 이야기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Второе место у команды «Водник mercury fish». Благодаря весу выловленных тунцов в 74 килограмма 850 граммов, участники команды получили 60 тысяч рублей и сертификат на 300 тысяч.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а команда «Василиса». Общий вес улова составил 79 килограммов и 700 граммов. Самые удачливые рыбаки получили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и сертификат на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мимо, собственно, соревновательной ч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всевозмож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суши и разделке тунца и дегустацию блюд. Для юных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сили аниматоров, открыли игровую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зоны.

작가 블라디미르 상기, 연극 <의호 신화의 사람> 평가

Сахалин 체호브 국제극장 센터의 초르니(검정)홀에서 연극 <의호 신화의 사람> 연극이 상연됐다. 노위시비르스크의 젊은 감독 니키타 노비코브는 сахалин의 유명 작가이자 님호 문학의 창시자인 블라디미르 상기의 작품을 연극으로 각색해 сахалин의 극장 무대에 올렸다. 작가는 극장을 직접 찾아와 무대에서 상연된 연극을 보고 높이 평가했다고 체호브 극장 측이 전했다.

"체호브 센터가 제 작품을 연극으로 상연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예술이다! 엄청난 시간적 공간을 행위로 체현해 내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왜냐면 сахалин의 의호 신화는 수백, 수천 년 존재하고 있고, 님호족의 의호 신화 속 사람들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 년간 알려져왔으며, 그 천 년이 그들의 전설 속에 반영되어있다.

친애하는 예술가와 시나리오 작가, 감독, 화가 여러분이 천 년 정신의 모든 것을 아주 잘 만들어진 무대 예술로 체현시켰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족의 예술이 완성되었던 수

천 년의 공간 속으로 이동했다. 여러분의 연극 상연에 큰 고마움을 전한다!"고 블라디미르 상기 작가가 말했다.

Писатель Владимир Санги оценил премьеру спектакля «Человек Ых-мифа»
В Черном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Чехова прошла премьера спектакля «Человек Ых-мифа».

Молодой режиссер из Новосибирска Никита Новиков воплотил на сцен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постановку по произведению извест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а нивх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ладимира Санги. Автор лично приехал на премьеру и высоко оценил увиденное на сцене,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центре Чехов-центра.

«То, что создали в Чехов-центре из мо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 большое искусство! Это сложно, слово воплотить в действие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огромного времени, потому что Ых-миф (Сахалин) существует сотни и сотни тысяч лет. А сведения о духовности жителей Ых-мифа (нивхов) известны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ысячелетий. Эти тысячелетия отражены в их преданиях. А вы, дорогие артисты, сценаристы, режиссер, художник, сумели всю эту тысячелетнюю духовность воплотить в сценическое искусство, которое оказалось удачным. Я вместе с вами перенесся в пространство многих тысячелетий, в течение которых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ось искусство моего народа. Большое вам спасибо за спектакль!», — поделился Владимир Санги.

러시아 은행 개방의 날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열려

9월 30일(토)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러시아 은행 '개방의 날'이 열렸다.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сахалин 지점의 전문가들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러시아 지폐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비법을 알려주고, 5루블리에서 5,000루블리까지의 지폐에 표시된 약 10가지 식별되는 보안기호들의 규칙을 찾아내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러시아 은행 직원이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 지폐의 진위를 검사할 수 있었다.

지도하는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에 대해 짧게 강연하고, 사이버 사기로부터 자신의 돈을 지키는 법을 설명해주었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은 화폐 조각으로 만든 열쇠고리를 기념품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러시아 지역들과 сахалин 지역에서 화폐 유통의 역사에 대해 배우며, 100 점의 전시물이 있는 전시회를 높이 평가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сахалин 지부를 운영하는 알렉산드르 쉬카루보는 전 러시아 은행 개방의 날은 러시아 은행 сахалин 지점에서 5회째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에 행사는 전국 64개 도시에서 이동 관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Банка России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0 сентября прошел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Банка России. Эксперты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ЦБ РФ рассказали гостям мероприятия секреты определения подли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банкнот, научили выявлять порядка десяти видимых защитных признаков на купюрах номиналом от 5 рублей до 5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мимо этого,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проверить подлинность бумажных денег с помощью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уют сотрудники Банка России.

Ведущие эксперты провели короткие лекции о том, чем занимается регулятор, и рассказали, как защитить свои деньги от кибермошенников. Также посетители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зготовили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 брелок из денежной обрез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сторией денежного обращ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ценили музейную экспозицию, включающую более 100 экспонат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 управля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Шкарубо,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проходи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отделении Банка России уже в пятый раз. В 2023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формате тура в 64 городах страны.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